

손우철의 행복한 富 자되기

통장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대의 금융생활은 거의 모두 통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이용하면서 제대로 통장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통장을 단지 돈을 맡겨두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하나의 계좌로 소득·지출 모두를 관리해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내역확인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통장을 관리한다면 소득과 지출이 투명해져 월 가계 예산안 작성에 용이해지고, 비상예비자금 마련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모으는 통장·쓰는 통장 따로 만들어라

일단, 통장은 소득계좌와 생활비계좌, 비상예비자금계좌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다. 소득이 들어오는 계좌와 생활비계좌를 따로 만드는 것은 소득을 투명하게 하고 지출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소득계좌는 소득이 들어오는 계좌로 정기적금·정기투자·세금·보험료 등 고정지출이 나가는 계좌로 생각하면 된다. 이 경우 소득 중에서 먼저 정기투자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하게 되므로 정기투자되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활비계좌는 소득계좌에서 투자되는 금액이 제외된 후 예상되는 생활비만큼 이체해 활용하는 계좌다. 각종 공과금·

공과금·통신비 등 계좌이체 가계부 대체효과 소득·생활비·비상자금계좌 등 3개 통장 적당

주거비용·통신비용 등을 생활비계좌에서 이체한다면 차후 통장정리를 통해 가계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계좌는 현금매출액을 이체하는 소득계좌와 신용카드매출액을 이체하는 소득계좌로 분리 운용해 매월 발생하는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생활비는 엄격하게 분리운용해야 하므로 지출계좌도 사업용 지출계좌와 가정용 지출계좌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

실제 재무상담을 하다보면 자영업자가 소득계좌와 생활비계좌를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매월 발생하는 매출액의 파악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지출되는 부분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생활비와 관련한 지출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매월 손익과 적정 생활비의 파악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잉여자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투자로 연결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형성의 걸림돌이 된다.

통장관리도 잘해야

시중유통 벌꿀 제품 57% “항생제 검출”

소비자시민모임 조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벌꿀 제품 57%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 28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4월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수입상가 등에서 구입한 20개 업체의 23개 토종꿀·양봉꿀 등 벌꿀제품을 5~9월 벨기에의 ILVO, 독일의 APPLICA 등 실험기관에 보내 항생제 검출여부를 시험한 결과 56.5%인 13개 제품에서 1개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됐다.

검출된 항생제는 스트렙토마이신, 퀴놀론, 클로람페니콜, 테트라사이클린, 매크로라이드, 설과 등이다. 특히 35%에 달하는 8개 벌꿀 제품에서는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고기와 닭고기, 어류, 돼지고기, 갑각류에 대한 이 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양봉업에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내년 거래세 1조4천억 감소” 담뱃값 인상 못하면 건보료 올려야

장병원 기획예산처장관 이달부터 부동산 거래세율이 인하되면서 내년 거래세가 1조4천억 줄어든다고 28일 밝혔다. 또 담배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담금진 지원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초자치단체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기초단체들이) 늘어나는 세수(중부세)는 갖고 광역단체의 줄어드는 수입(거래세)은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라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 장관은 “(지난 9월1일부터 거래세율 인하로) 거래세는 올해 5천억원, 내년에는 1조4천억원이 줄어든다”면서 “중부세는 (2005년말 기준으로) 올해 1조1천억원, 내년 1조9천억원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담배 가격 500원이 인상되지 않으면 7천억의 예산이 줄어든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노인전문병원을 세우거나 임검진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말했다.

“시중銀 청원경찰 월급 100만원”

韓銀 8분의 1... 형평성 논란

최대 9천100만원까지 보수를 받는다는 주위 국책 금융기관의 청원경찰 등 일부 직군에 대한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은의 용역회사 소속 청원경찰과 시중은행의 청원경찰들이 비교대상으로 부각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중은행의 청원경찰 상당수는 약 1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평균 2천500만원, 하나은행이 2천800만원 등 2천500만~3천만원대이지만 대다수의 청원경찰들은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어 이들 회사에 일정한 금액을 내고 나면 실수령액은 100만원을 가가스로 남는다.

이들이 1년에 약 1천200만원을 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은 청원경찰의 최대 급여보다 1/7~1/8 정도만 받는 셈이다.

질병물질을 없앤 ‘항산화 돼지’

국내 과학자 세계 최초 개발

충남대 박창식 소장·김상겸 교수팀

인체 내에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한 건강 기능성 ‘항산화 돼지’가 국내 과학자들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충남대 형질전환복제돼지연구센터 박창식 소장(사진 왼쪽)과 김상겸 교수팀은 충남축산기술연구소, 한국축협과 공동으로 활성산소의 독성을 없애는 천연물질을 돼지에 투여, 항산화 기능을 강화한 사육돼지(비돈육)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화와 암, 심혈관계질환, 퇴행성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박 소장은 말했다.

삼성 중저가家電 중국 생산

식기세척기 등 中 메이디社에 OEM방식 생산 위탁

삼성전자가 중국 3대 가전업체인 메이디(Midea·美的)와 손잡고 식기세척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총괄 이현봉 사장은 28일 수원사업장에서 중국 메이디의 허샤젠(何序建) 사장과 만나 식기세척기 제품을 주문자상표생산부착(OEM) 방식으로 메이디에 위탁생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허샤젠 사장은 또 조만간 삼성광주전자 등을 돌려볼 예정이다.

메이디가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하게 될 식기세척기는 국내 내수시장에는 판매되지 않으며, 전량 북미시장과 중국 현지 시장을 공략하는 데 사용된다.

메이디는 미국 가전회사 GE에 연간 100만대 규모의 식기세척기를 OEM 방식으로 공급하는 등 탄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아울러 중저가 시장에 대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에어컨 제품에 대해서도 메이디와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메이디와 협력이 이뤄지더라도 에어컨이 자사의 5대 전략제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장 만큼은 자체 생산한 물량으로 직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광주전자 관계자는 “현재 삼성전자가 메이디에 에어컨을 컴프레서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메이디가 생산할 에어컨과 식기세척기는 모두 중저가 시장을 겨냥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고급 브랜드를 지향하는 삼성광주전자 공장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깨끗한 손, 건강한 추석나기

28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깨끗한 손, 건강한 추석나기’ 캠페인에서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손을 씻고 있다. 이 캠페인은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주)옥시 데틀이 후원한 행사로 체험부스를 무료로 운영했다.

/연합뉴스

가계대출금리 6%대 진입

콜금리 인상 영향... 28개월만에 최고치

콜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6%대로 진입하면서 2년4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분 기준)는 연 6.03%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올랐다. 이는 2004년 4월의 연 6.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달에 비해 0.07%포인트 오른 연 5.86%를 기록, 2004년 7월 5.93%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신용대출금리도 연 6.28%로 0.03%포인트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양도성에급증세(CD)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데다 지난 6월말

금융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시중은행간 경쟁이 다소 완화되면서 대출을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금리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금리도 올랐다. 지난달 기업대출 평균금리는 전월대비 0.04%포인트 오른 연 6.20%로 지난 2004년 1월 6.23%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연 6.27%에서 6.33%로 0.06%포인트 상승한 반면 대기업 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5.59%를 나타냈다.

가계와 기업대출 금리 상승으로 전체대출 평균금리는 전월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연 6.16%를 기록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산업 ‘병목현상’ 심각하다”

800조 경제규모 불구 제도는 옛날식

대한상의, 정부 규제 현황 분석

국내 경제규모가 800조원을 넘어선고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등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는 낡은 제도로 인한 ‘경제 병목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발표한 ‘시장변화에 뒤떨어지는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가 남아있다”며 “시장변화에 뒤떨어지는 구(舊)제도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정보화 시대, 경제규모 확대, 세계화와 글로벌 경쟁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꼽았다.

대한상의는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로 정부의 행정서류 직접제출 요구, 화물업계의 화물운송 위·수탁증 교부의무를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많은 국가예산으로 전자정부를 구축했으나 창업과정에서 여전히 시·군·구의 창업담당 부서, 상업등기소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한다”며 “법인등록세 고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주권납입금보관증명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 등 관련서류 처리를 온라인화 하자”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인터넷 등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에도 환경, 안전, 위생 등 많은 분야의 기업 대상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규제 기준이 바뀌지 않아 예로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외부감사 대상기업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범위 등을 꼽았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범위가 2002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고정된 후 바뀌지 않아 대상 그룹수가 2002년 43개에서 2006년 8월 현재 59개로 늘었다.

대한상의는 호화사치 기준 역시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변화야 하며 특히 특별소비세에 대한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삼성 DMB폰 두께 10mm 벽 깼다

8.4mm 울트라슬림 출시

울트라 에디션 시리즈로 슬림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얇은 DMB폰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28일 ‘울트라 에디션 6.9’의 디자인에 DMB 기능을 추가한 ‘울트라 슬림 DMB폰(SCH-B510/SPH-B510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DMB폰은 처음으로 10mm의 벽을 넘어 두께가 8.4mm에 불과하다. 무게는 72g, 삼성전자는 이 제품



이 세계에서 가장 얇고 가벼워 셔츠 앞 주머니나 핸드백에 가볍게 넣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손 안의 TV’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은 40만원대 후반.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Job Name, Department, Salary/Requirements, Start Date, End Date, Contact Info. Includes roles like HR Manager, Sales, and various administrative positions.

(광주직업코리아 512-6210 제공)